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보고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2016.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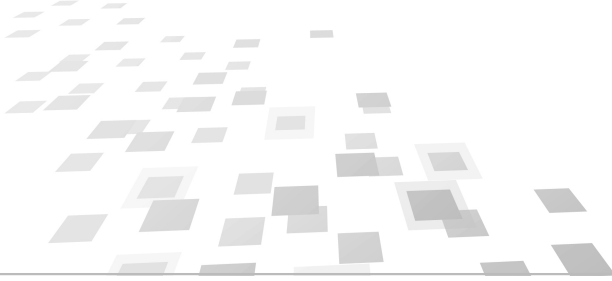
국회의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



# 목 차

<b>I. 연구의 배경 및 목적</b>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1
<b>I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의 주요 현황</b> .....	2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 현황 .....	2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	8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성 현황 .....	13
<b>II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b> .....	16
1. '예술 현장과의 소통, 사회적 협치(거버넌스)가 없는 지원사업 반복' .....	16
2.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과의 협력 정책 없이 돈만 나누어주는 사업 반복' .....	19
3. '예술창작 지원 부족, 문화예술분야 전문기관들 사이의 중복·유사 지원 반복됨' .....	23
4. '문예진흥기금 등 재원의 불안정성과 함께 10년째 불안한 예술지원 사업' .....	29
5. '청와대와 문화부 눈치만 보고 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독립성 훼손' .....	35
<b>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의 개선방안</b> .....	44
1. 사회적 협치에 기반한 지원사업 활성화 : 문화예술 생태계 및 현장과의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지원정책 수립 .....	44

2.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는 지원사업 구조 마련 :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들과 함께 지역 협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사업 구조 수립 .....	45
3. 예술 창작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지원사업 전략 추진 : 문화예술분야 전문기관들 사이의 중복·유사 지원을 피하고 문화예술위원회로서 예술 창작에 집중하는 지원사업 전략 추진 .....	46
4.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다각화 마련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자원 조달 구조 마련 .....	47
5. 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독립성 확보 :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예술행정 실행 .....	48



## 배경목적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1)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전문기관이자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음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 선정 과정의 검열 논란을 비롯하여 예술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단절, 협치(거버넌스)에 기반한 위원회 운영 실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음
- (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 목적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 현황 파악을 통해 예술지원사업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론화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제시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예술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 및 발전 방향 공론화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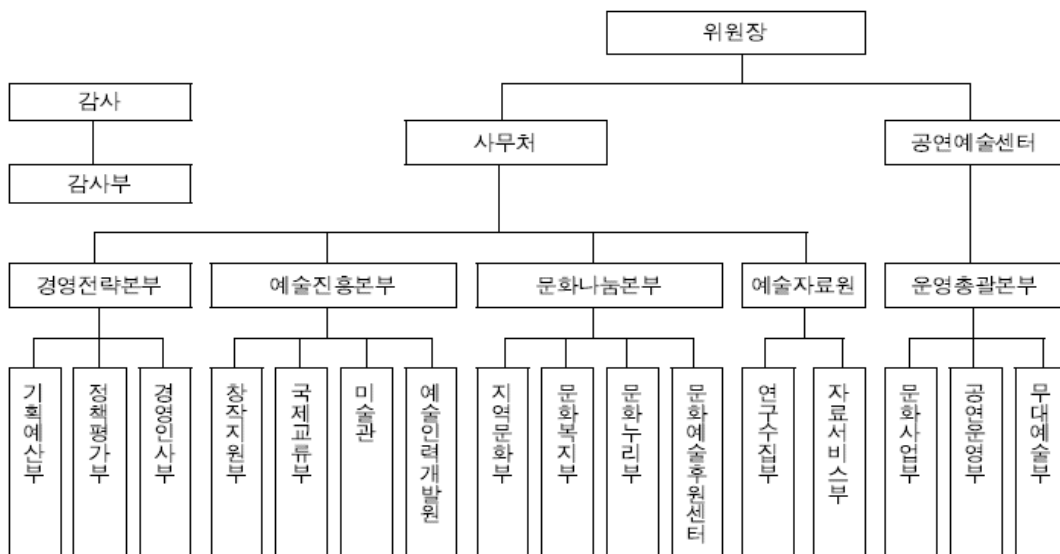
## 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의 주요 현황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 현황

#### (1) 조직 구조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 5월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조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① '14년 5월,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  
- 1처 1센터 5본부 · 17부(부, 관, 원, 센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 조직 구조는 국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협치(거버넌스) 중심의 위원회로서의 협력적 구조, 다양한 예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개방형 구조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 조직 구조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역할과 정책적 가치에 기반한 조직 구조가 아니라 철저하게 중앙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 단위의 수행을 위한 구조로 위계화 되어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정체성, 역할,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문기관이자 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예술 환경의 변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창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혁신이 매우 시급한 상황

II. 내부역량 분석  
1. 조직구조 분석

조직구조 및 기능변화

위원회 위상변화에 따라 출범 이후 매년 조직(구조)을 개편하였음. 조직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잦은 조직개편은 직무전문성 체고 및 업무의 유기적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음

	2005. 8	2007. 2	2008. 1	2009. 2	2010. 3	2012. 6	
조직구조	4실 4관 13팀	3실 4관 7팀	2실 1센터 1본부 10팀 3역 1추진단	3실 4관 8부 1단	3본부1실 7부 1관 1원	3본부 8부 1관 1원	
주요 사업 기능	기획기능	기획조정실 정책실	정책홍보실	정책기획실 정책연구실	정책기획실 신사업 추진단	경영전략본부 (기획예산부/경영인사부)	경영전략본부 (정책기획부/경영인사부)
	창작 및 컨설팅 지원기능	예술진흥실	예술진흥실	예술지원컨설팅센터 (분야별 지원팀)	예술진흥실 (지원컨설팅부)	예술진흥본부 (지원심의실)	예술진흥본부 (예술지원부)
	지역협력 및 교류 기능	문화협력실 내 지역문화팀 사회공헌팀 국제교류팀	문화협력실 내 지역문화팀 국제교류팀	문화협력사업본부 (국제교류팀)	문화협력실 내 지역협력부 (국제교류부)	문화사업본부 내 문화나눔부 (교류협력부)	문화나눔본부 내 (예술나눔/문화복지) (국제교류부)
	국제교류 기능						
조직개편 특징	· 문화협력실에서 지역문화, 사회공헌 및 국제교류기능 담당	· 문화협력실에서 지역협력 및 국제교류기능 담당	· 정책연구실에서 정책 연구 R&D 기능 강화 · 예술지원컨설팅센터에서 분야별 컨설팅 지원 및 국제교류 기능 담당	· 예술진흥실내 국제교류 기능을 두어 지원컨설팅 기능과 연계성 강화 ·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신사업추진 기능 강화	· 예술진흥본부내 지원심의 및 국제교류 기능을 두어 지원컨설팅 기능과 연계성 강화 · 공간 축소 및 기능 분리에 따른 조직재분장	· 예술인 창작지원과 문화나눔 기능 이원화 · 문화복지 기능 강화 · 국제교류 정책지원 인력확충 및 역할 강화	

- 위원회 출범이후 8차례(평균 1년 1회)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 예술진흥본부의 컨설팅 기능이 분야별 세분화된 지원체계에서 단일부서인 예술지원부로 축소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음
- 국제교류기능은 실/본부단위 내에서 잦은 조직이동이 이루어짐
-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이나 '교류 및 협력 기능'의 실단위에 포함되어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국제교류기능의 역할정립을 저해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이후 진행된 8차례의 조직 개편 흐름을 정리하면 앞의 자료와 같음. 예술진흥본부의 컨설팅 기능이 분야별 세분화된 지원체계에서 단일부서인 예술지원부로 축소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분석됨
- 지난 10여년 동안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 개편 흐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국가 단위의 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혁신이나 고민은 매우 더디거나 부재한 상황
- 이에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 설립의 활성화, 민간 주체들의 국내외 예술 교류 활성화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감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직무 분석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행 직무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 ‘지속가능경영시스템 구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사업은 ‘문화예술 창의성 증진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 ‘예술의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 ‘경영선진화 및 효율화’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창의성 증진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됨

ARKO Vision	핵심 사업	대분류	중분류(세부 직무수)
<b>1.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b>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기초 공연예술 기반강화 공연예술 대표콘텐츠 육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문화예술 글로벌 역량강화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문화예술 창의성 증진사업	문화예술진흥	. 미술관(4) . 문화향수 확대(3) . 예술인 육성(3) . 지역교류(4) . 예술인 지원(4) . 해외교류(3) . 공연예술센터(3) . 예술자료원(2)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b>2. 문화나눔을 통한 행복사회 구현</b> 문화예술 복지확대 문화예술 후원 확산 국민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정보개방과 공유, 소통 활성화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진흥	
	예술의 사회적 인식제고 사업		
<b>3. 지속가능경영시스템 구축</b> 고객감동 열린경영 조직역량 제고	경영선진화 및 효율화	경영관리	. 경영기획(3) . 외부평가관리(2) . 예산/결산(1) . 총무(6) . CS경영(1) . 홍보(1) . HR(5) . IT(1)

### (3) 사업구조 현황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구조를 분석하면 아래 자료와 같음

위원회는 사업은 5개의 주요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 및 활동은 아래와 같음

주요 사업 (*12년 예산)	추진 방향	사업 내용 및 활동	관련 부서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 [19,995백만원]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구축 및 기초예술의 창작·표현 활동에 대한 예술가·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예술창작·표현 활동 지원</li> <li>□ 신진예술가의 육성과 새로운 예술의 발굴</li> <li>□ 예술 국제 교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li> </ul>	예술지원부 국제교류부
문화예술공간 운영 강화 [1,822백만원]	기초예술의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거점공간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통한 예술현장의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운영 : 849백만원</li> <li>□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 973백만원</li> </ul>	아르코미술관 예술인력개발원
생활속 예술 활성화 [57,400백만원]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바우처 : 34,300백만원</li> <li>□ 공연나눔 : 16,100백만원, 전시나눔 : 800백만원</li> <li>□ 문학나눔 : 4,000백만원, 창작나눔 : 2,200백만원</li> </ul>	문화복지부
지역문화 예술진흥 [20,250백만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과의 문화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 9,890백만원</li> <li>□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 8,060백만원</li> <li>□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 2,000백만원</li> <li>□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협의체) 운영 : 300백만원</li> </ul>	예술지원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10,402백만원]	민간 예술기부 확대와 공공미술사업 운영 등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술지원정책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767백만원</li> <li>□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8,115백만원</li> <li>□ 공공미술사업운영, 예술정책연구조사</li> </ul>	예술나눔부 아르코미술관

주요사업	사업 내용 및 활동
예술창작 역량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구축 및 기초예술의 창작, 표현활동에 대한 예술가·단체 지원</li> <li>-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예술창작, 표현활동 지원, 신진예술가의 육성과 새로운 예술의 발굴, 예술 국제교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li> </ul>
* 공연예술센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간접 지원의 거점 공간으로서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등을 운영하고 관객 중심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 축제를 통해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 및 예술의 일상화에 기여</li> <li>- 관객 중심의 축제사업, 예술단체 및 관객 서비스 지원 등</li> </ul>
* 예술자료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기록 및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예술기록유산에 대한 보존 체계를 선진화하고, 예술인들에게 정보 제공</li> <li>- 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예술정보 통합 서비스, 문화 다양성 아카이브 운영, 예술기록 전문가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li> </ul>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 해소</li> <li>- 통합이용권, 문화나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및 생활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등</li> </ul>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문화격차 해소</li> <li>-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협의체) 운영</li> </ul>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예술기부 확대와 공공미술사업 운영 등 예술의 사회적 인식제고 및 예술지원정책의 전문성 강화 추구</li> <li>-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공공미술사업운영, 예술정책연구조사,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li> </ul>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예술가 창작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문화공간 운영’,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 지원’,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 국내외 문화예술 지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 재원 구조에 기반한 사업구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수동적이고 정형화된 사업구조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예술의 등장, 예술의 사회적 창조성 확장,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한 예술행정의 혁신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낡은 사업 형태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행 사업구조는 예술 현장이 경험하고 있는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연계와 융합’, ‘사회 혁신(창조산업,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에 따른 사회적 예술의 환경 변화’, ‘문화다양성 등 국내외 예술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수용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큼.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구조는 기존의 ‘전문 예술과 문화 복지’, ‘장르예술과 지역문화’라는 낡은 이분법과 지원 구조에 고착화되어 있음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 (1) 환경분석에 따른 대응전략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주체</li> <li>○ 기관 창립 40년의 정책/운영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문화예술계 폭넓은 네트워크, 전문인력 및 정책/운영 노하우 보유</li> </ul> </li> <li>○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지속적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62.4% 대비 '14년 71.3%, 8.9%↑</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현장의 문화예술 정책만족도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만족도 2.2점('09년 대비 △9.1%)</li> </ul> </li> <li>○ 예술행사 관람 어려움 국민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정보부족, 시설부족 응답 급증</li> </ul> </li> <li>○ 통합 과정 중 非공공기관 예술자료원 정원인력 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정부의 문화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융성' 국정기조 채택</li> <li>- 문화재정 2% 공약(국정과제 108-1)</li> <li>- 정부 3.0 전략에 따른 개방공유, 소통협력 강조</li> </ul> </li> <li>○ 2개 문화예술 주요기관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영역 및 예산, 인력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기금 소진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 모금 중단 이후 지속적 적립금 감소</li> </ul> </li> <li>○ 광주·전남혁신도시 본사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시설 원격화</li> <li>- 대외 이해관계자 스킨십 경영 난항</li> </ul> </li> <li>○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저하</li> </ul>
Opportunity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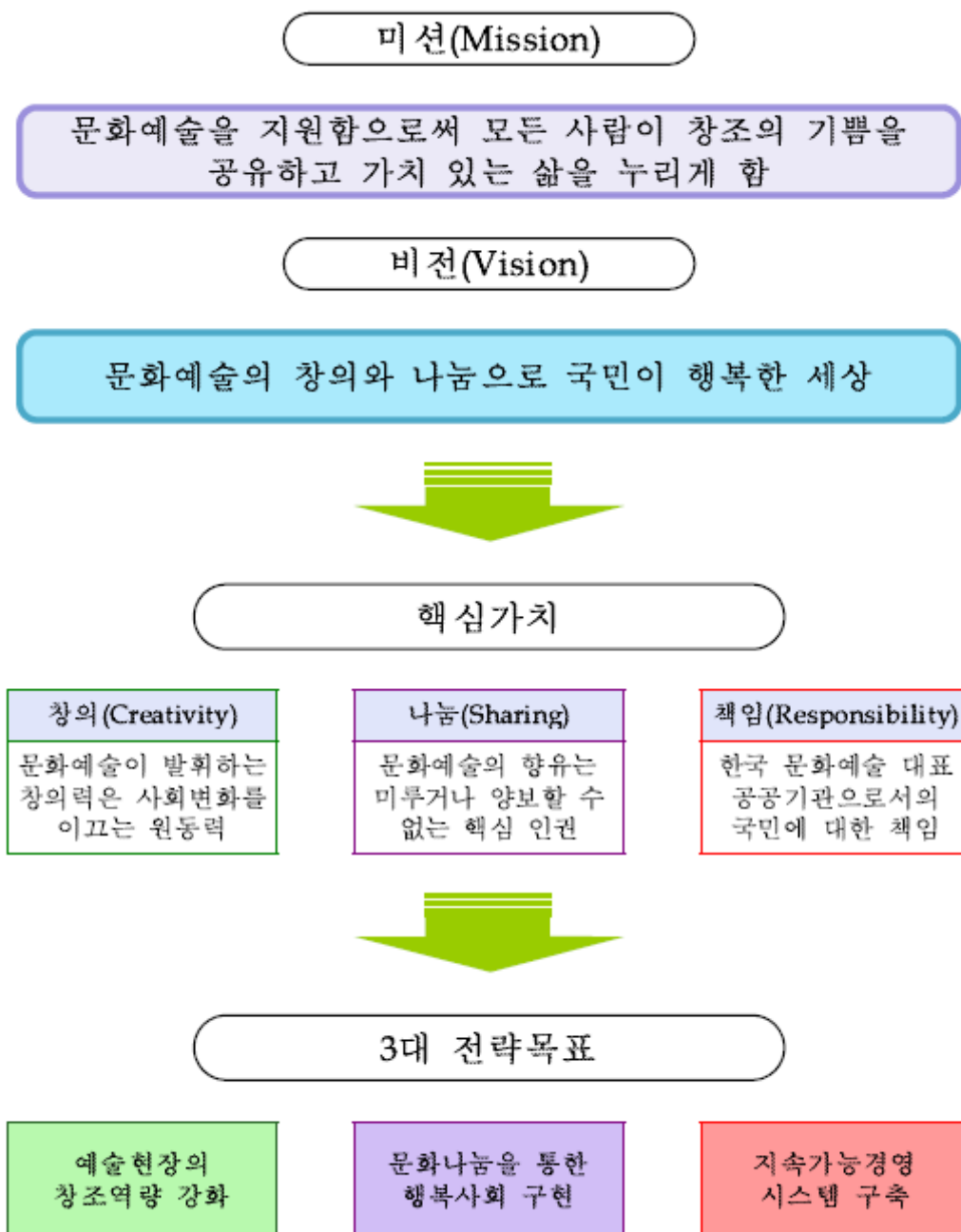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li> <li>▶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예술가 및 문화매개인력 양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li> </ul> </li> <li>▶ 문화예술 글로벌 역량강화</li> <li>▶ 공연예술 대표 콘텐츠 육성</li> <li>▶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공연예술 기반강화</li> <li>▶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위,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간 문화예술분야 협력 강화</li> </ul> </li> <li>▶ 문화예술 후원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나무 운동 전국적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 후원문화 조성</li> <li>- '17년까지 예술나무 10만 그루 조성</li> </ul> </li> </ul>
S-O(역량 확대)	W-O(기회포착)
S-T(역량 집중)	W-T(약점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중심 서비스 기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3.0 전략에 따른 선제적 찾아가는 서비스 전사과제 발굴 및 제공</li> <li>-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종합지원실' 운영 등</li> </ul> </li> <li>▶ 고객감동 열린경영</li> <li>▶ 문화예술 복지확대</li> <li>▶ 국민 생활문화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기금 지원 및 향후 사업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li> <li>- 시대흐름 반영 탄력적 사업개편 추진 및 기관통합 따른 효율적 경영체계 마련</li> </ul> </li> <li>▶ 지방이전 환경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 사업 운영체계 확보 및 효율적인 이해관계자 대응전략 마련 등</li> </ul> </li> </ul>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15년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진행.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SWOT 분석 결과는 앞의 자료와 같음
-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강점으로 ‘문화예술기금 운영의 Ownership 보유’, ‘현장 문화예술활동지원 조직 및 공간 보유(미술관, 인력개발원)’,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네트워크 보유’, ‘문화예술관련 전문인력 보유’, ‘문화예술 지원분야의 축적된 노하우 보유’,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경험’ 등을 제시
- 반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약점으로는 ‘기금 감소에 따른 재무적 불안정성 심화’, ‘한정된 조직자원(예산, 인력) 대비 넓은 사업 범위’, ‘국제교류 및 컨설팅 지원 기능의 전문성 미흡’, ‘자체 시행 지역문예진흥사업 부재’, ‘창의적인 사업발굴 및 사업다변화 미흡’, ‘사업/공간 분리에 따른 기관 이미지 위축’ 등이 제시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주한 컨설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 및 컨설팅 지원 기능의 전문성 미흡’, ‘자체 시행 지역문예진흥사업 부재’, ‘창의적인 사업발굴 및 사업다변화 미흡’ 등이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이 바로 국가 단위 문화예술위원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자 역할이기 때문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 관련 국가 단위의 가장 중요한 전문기관이자 지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점으로 언급된 내용들(‘문화예술기금 운영의 Ownership 보유’, ‘현장 문화예술활동지원 조직 및 공간 보유(미술관, 인력개발원)’,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네

트위크 보유’, ‘문화예술관련 전문인력 보유’, ‘문화예술 지원분야의 축적된 노하우 보유’,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경험’)은 기본적인 구조에 당연하게 포함되는 내용들이며, 오히려 단점으로 분석된 내용들은 국가 단위 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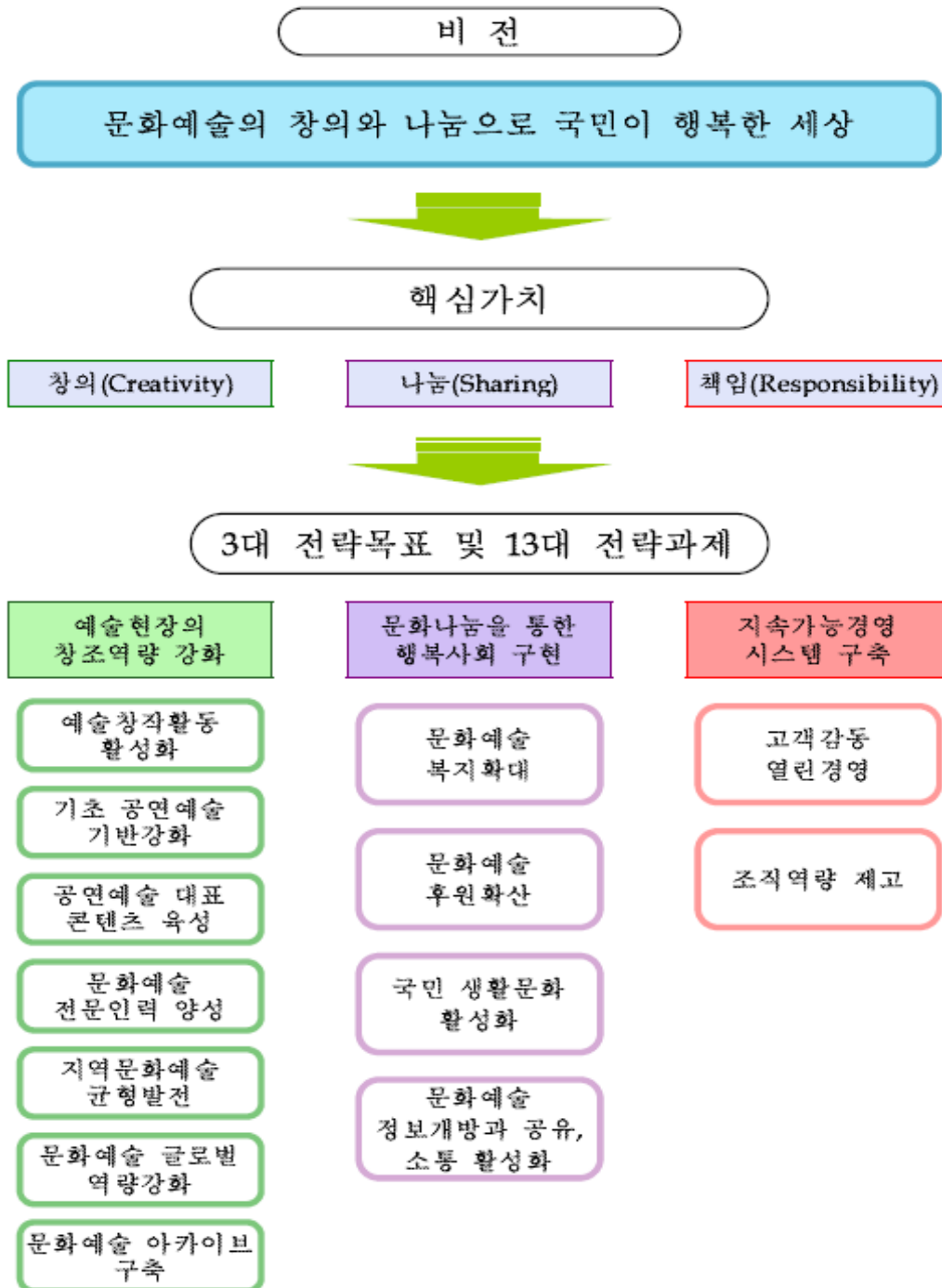
(2) 기관 미션 및 비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미션 및 비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3) 경영목표 체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목표 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성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성 현황을 2015년도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억원)

주요사업	'15년도 예산	'16년도 예산(안)	증 감
총 계	1,826	2,181	355
· 예술창작 역량 강화 사업	464	447	△17
·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	936	924	△12
·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248	501	253
·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	178	309	13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성은 전년(2015년) 대비 약 3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53억원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항목에서 증액되었고, 131억원이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 항목에서 증액되었음
- 반면 ‘예술창작 역량 강화 사업’과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은 각각 17억원, 12억원 감액되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도에 355억원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고갈 위기에 직면한지 오래 되었으며,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의 예술지원사업 정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자료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03.12.31) 후 경륜·경정 수익금 중 24.5%가 전입되어 기금감소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또한 ‘향후 대책으로 민간 기부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한 기부금 확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뉴서울골프장 매각, 관광 및 체육 분야 수익금 전입, 문화재정 2% 공약 실현 시 위와 같이 기금재원이 확충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적립금 감소 추이는 불가피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수지 전망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2003.12.31)된 이후 기존 적립금을 부족한 사업재원으로 사용하여, 2004년 5,272억원에 달하던 적립금이 2012년말 기준 2,52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재정수지 전망

II. 내부역량 분석  
3. 재무구조 분석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2003.12.31)된 이후 기존 적립금을 부족한 사업재원으로 사용하여 5,272억원 (2004년도)에 달하던 적립금이 '12년말 기준 2,52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문예기금 재정수지 전망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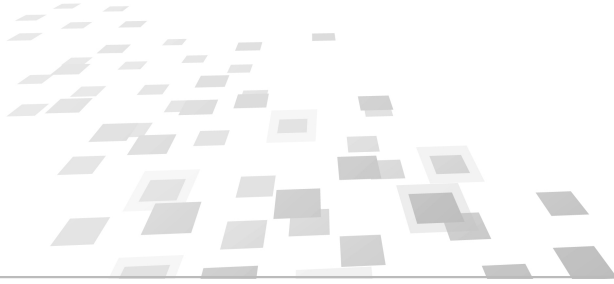
구분	'10실적	'11실적	'12실적	'13전망	'14전망	'15전망	'16전망	'17전망
순수입(A)	881	1,085	1,167	3,137	3,602	2,999	3,649	4,431
순지출(B)	1,426	1,190	1,359	1,277	2,218	2,809	3,517	4,307
평가손익(C)	△207	△253	84	-	-	-	-	-
수지차(D=A-B+C)	△751	△359	△108	1,860	1,384	190	132	124
적립금 잔액	<b>2,988</b>	<b>2,631</b>	<b>2,522</b>	4,382	5,766	5,955	6,088	6,211

□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03.12.31) 후 경륜·경정 수익금 중 24.5%가 전입되어 기금감소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향후 대책으로 민간 기부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통한 기부금 확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뉴서울골프장 매각, 관광 및 체육 분야 수익금 전입, 문화재정 2% 공약 실현 시 위와 같이 기금재원이 확충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적립금 감소 추이는 불가피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감(B-A)	증감(%)
<b>총 계</b>	<b>196,818</b>	<b>219,590</b>	<b>22,772</b>	<b>11.6%</b>
<b>[단1661]예술창작역량강화</b>	<b>46,450</b>	<b>45,783</b>	<b>△667</b>	<b>-1.4%</b>
{세}예술창작지원	31,702	27,390	△4,312	-13.6%
(1-1)문학창작육성	3,200	3,080	△120	-3.8%
(1-2)시각예술창작육성	3,632	3,200	△432	-11.9%
(1-3)공연예술창작육성	22,640	21,110	△1,530	-6.8%
{세}예술인력육성	8,118	12,593	4,475	55.1%
(2-1)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1,500	-	△1,500	-100.0%
(2-2)예술인력재교육	6,618	12,593	5,975	90.3%
{세}국제예술교류지원	6,630	5,800	△830	-12.5%
(3-1)예술가국제역량강화	3,100	1,100	△2,000	-64.5%
(3-2)한국예술세계화	3,530	4,700	1,170	33.1%
<b>[단1663]생활속예술활성화</b>	<b>93,621</b>	<b>92,469</b>	<b>△1,152</b>	<b>-1.2%</b>
{세}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93,621	92,469	△1,152	-1.2%
(4-1)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53,143	55,270	2,127	4.0%
(4-2)공연나눔	39,278	36,119	△3,159	-8.0%
(4-3)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1,200	1,080	△120	-10.0%
<b>[단1664]지역문화예술진흥</b>	<b>24,820</b>	<b>50,473</b>	<b>25,653</b>	<b>103.4%</b>
{세}지역문화예술지원	24,820	24,820	-	-
(5-1)지역문예활동지원	24,590	24,590	-	-
(5-2)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230	230	-	-
{세}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25,653	25,653	100.0%
(5-3)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	25,653	25,653	100.0%
<b>[단1665]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b>	<b>31,927</b>	<b>30,865</b>	<b>△1,062</b>	<b>-3.3%</b>
{세}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31,927	30,865	△1,062	-3.3%
(6-1)예술정책실행력제고	1,250	1,200	△50	-4.0%
(6-2)문화예술기부활성화	26,820	25,410	△1,410	-5.3%
(6-3)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2,057	4,255	2,198	106.9%



## 문제점

### Ⅲ.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

#### 1. ‘예술 현장과의 소통, 사회적 협치(거버넌스)가 없는 지원 사업 반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 구조에서 가장 강하게, 반복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술 현장과의 소통 부재’
- 예술 현장과의 소통 부재는 단순히 의견수렴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 생태계에 기반하여 좀 더 혁신적이고 민주적이며 탄력적인 협치(거버넌스)를 기대했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
- 이미 언론과 현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예술 현장의 비판과 불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예술계 현장과 현실을 반영한 예술지원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실을 반영

- 이는 심지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12~2015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서조차 기금 지원, 기부금 사업, 예술인력개발원, 미술관 운영, 공연예술센터 운영, 예술자료원 등 문화예술위 사업 및 산하기관 운영 관련 6개 평가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전년보다 떨어졌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 특히 예술지원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금지원에 대한 평가의 경우 2012~2014년의 동일 조사결과에는 ‘양호’였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보통’으로 한 단계 하락했을 정도로 예술 현장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
- 참고 자료

□ 경향신문 2016년 06월 01일자

### “불쌍한 예술가 돕는다고? 그 태도부터 고쳐라”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서울 문화재단 연습실에서 문화연대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묻다’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지난해부터 불거진 ‘정치적 검열’ 등 특정 사안을 비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근본적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근본적 철학과 방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술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며 문예위가 지닌 관점의 전환, 이에 따른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발제자인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문예위에 대해 “국가주의와 상업주의

의 동거”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검열과 편파적 지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채, 간접적이고 교묘하게 예술가들의 활동 기회를 뺏는 방식으로 예술계를 통제하려 한다”며 “(문예위로 대표되는) 국가의 예술지원이 국가주의 프로파간다와 상업주의가 기묘하게 뒤섞인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예술을 정치의 하부구조로 바라보거나, 시장에서 파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그는 “지금의 문예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평론가도 제대로 된 예술 가치 인식을 촉구했다. 그는 “예술가들을 배고프고 불쌍한 존재, 다시 말해 구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뛰어넘어야 제대로 된 예술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쌍한 예술가 도와주기, 지원금 나눠주기’식의 인식으로는 지원 정책의 올바른 비전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도시 재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예술로 인해 얻어지는 파생적 가치는 부차적 효과일 뿐”이라며 “그런 효과도 예술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활성화되어야 자연스럽게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빛어지고 있는 검열 등 일탈적 행위는 바로 그렇게 “예술가들을 구휼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예술의 파생적 효과에 함몰돼 정작 예술 자체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관점에서 나온다”는 진단이다. 그는 문예위의 이런 태도가 “많은 예술가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은 “기존의 문예진흥원을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민간자율기구로 만든 것은 독립성을 위해서였다”며 “지금은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율기구로 출범한 이후 위원들의 호선으로 문예위 위원장을 선출했으나,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바뀌면서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 소장은 “특히 현 정부 들어 중앙집중화가 심각해졌다”며 “엄연히 전문기관인 문예위를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설가 한강이 맨부커상을 받은 것에서도 보듯이 우리 예술가들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문예위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같은 현장 예술가들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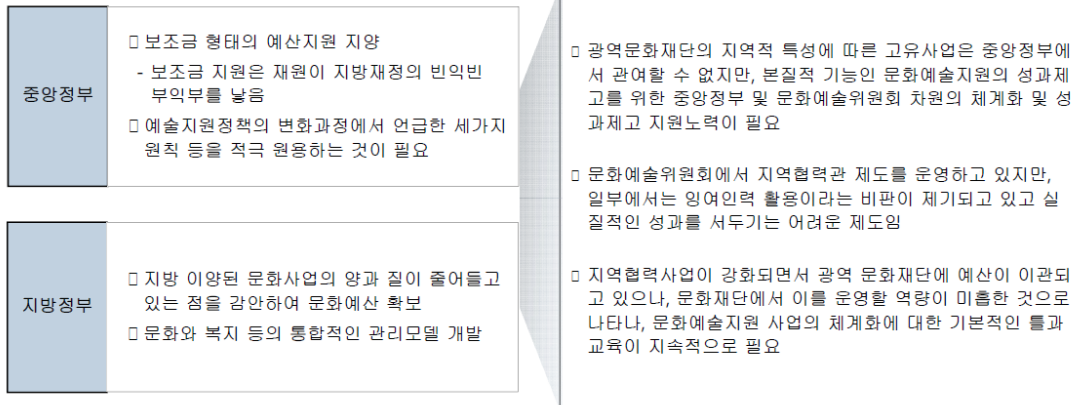
## 2.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과의 협력 정책 없이 돈만 나누어주는 사업 반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사업의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지역문화예술환경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많은 부분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분배와 관련되어 있음. 지난 10년 사이 전국적으로 광역, 기초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이 크게 늘어나고 역량도 성장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분배하는 역할로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수동적인 지원사업 구조를 반복함
- 아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에서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주체들의 역량 미흡을 늘 강조해 왔으나 오히려 최근 들어 이러한 태도가 중앙 집권적인 낡은 지원사업 구조, 지역의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 중앙 정부와 기관의 예산집행권 남용, 지역화에 따른 새로운 협치 모델 부재 등으로 크게 비판받고 있음

지역협력사업이 강화되면서 광역 문화재단에 예산이 이관되고 있으나, 문화재단에서 이를 운영할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체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역할

문화예술위원회 역할 검토



-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예술 현장, 지역 및 생활 현장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연계성을 보유한 지역내 문화예술 전문기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문성과 혁신성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
- 특히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고갈의 출구로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을 추진하다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계, 정책 전문가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과 비판을 받았음
- 더 늦기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스스로, 적극적으로 문예진흥기금 분배 기관으로서의 수동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전문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모델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

## ■ 참고 자료

□ 중부매일 2015년 08월 11일자

### '문예진흥기금 고갈' 정책 토론회 개최

### 전국 시도문화재단-예술계 "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우려"

송창희 기자 333chang@jbnews.com

전국 13개 광역문화재단 협의체인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 고갈과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23일 서울문화재단을 시작으로, 7월 31일 광주, 8월 13일 중부권, 8월 14일 대구를 거치는 릴레이 토론회로 충북문화재단과 4개 문화재단(강원, 대전, 충남)이 주관하는 중부권토론회는 13일 오후 3시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1973년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은 순수창작예술과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2003년말 영화 관람료 일부재원에서 지원해온 문진기금 모금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고갈에 대한 비판과 대체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04년 5천273억원이었던 적립금은 올해 918억, 내년에는 151억원으로 줄어들어 2017년에는 사업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화예술부문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정부는 최근 지역협력형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역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계는 이렇게 지역협력형사업의 예산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기회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된다면 예술지원과 관련한 그간의 사업체계에 큰 혼란이 발행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충북에서 열리는 이번 중부권 정책 토론회는 '전환기에 선 지역문화예술-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박종관 서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심층토론에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해규 강원도 연극협회장, 이용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조성철 대전민예총 상임이사 등 4명이 참여한다.

### 3. '예술창작 지원 부족, 문화예술분야 전문기관들 사이의 중복·유사 지원 반복됨'

- 국가 단위 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술창작 지원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예술환경이 변하더라도 기초예술의 창작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써 문예기금과 지자체 지원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II. 내부역량 분석  
2. 사업구조 분석

####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예술환경이 변하더라도 기초예술의 창작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써 문예기금과 지자체 지원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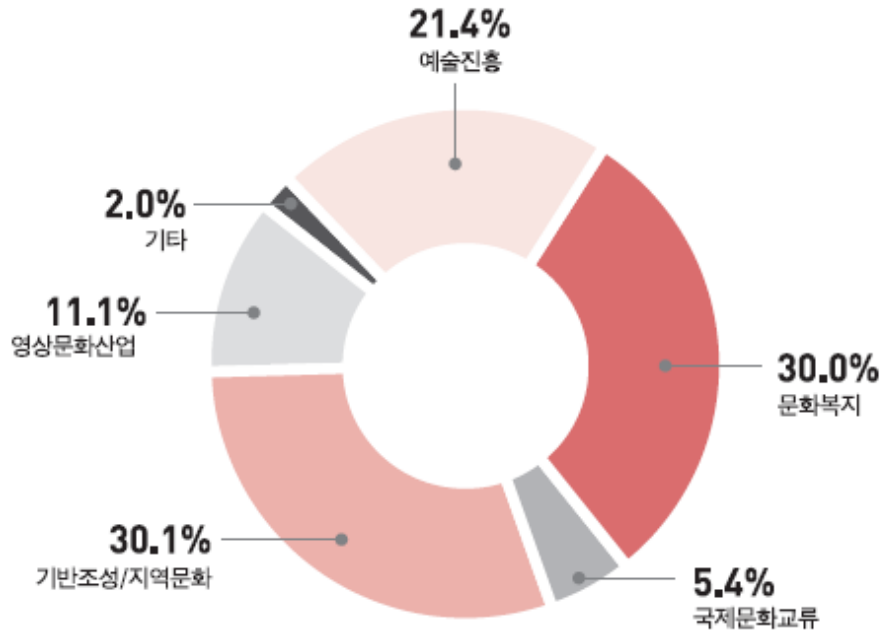
예술창작지원사업									
<b>사업 목적</b>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실험성 및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조역량 강화 및 예술창작 핵심사업의 경쟁력 제고								
<b>사업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환경이 변하더라도 기초예술의 창작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임</li> <li>□ 지원방식은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및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의 4대 대책</li> </ul>								
<b>추진전략</b>	<b>계량지표명</b>	<b>'11년 실적</b>	<b>'12년 목표</b>						
고객밀착형 예술창작지원 서비스 강화	지원대상만족도	79.1점	85점						
간접 예술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간활용건수	47건	52건						
	타분야와의 교류활동	-	5건						
지역협력기반 강화	지원대상만족도	87.8점	85점						
□ 예술전용공간 운영성과									
<b>구분</b>	<b>2011</b>	<b>2012</b>	<b>비교</b>						
공간가동률	80.8%	82.0%	1.2% ↑						
참여관객수	274천명	295천명	7.7% ↑						
참여예술인수	7,519명	8,973명	19.3% ↑						
기획공연회수	3,469회	4,533회	30.7% ↑						
지원대상주요문학상 수상실적	15건	21건	40.0% ↑						
지원대상주요공연분야 수상실적	14건	15건	7.1% ↑						
<b>사업 분석 및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을 지원대상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li> <li>□ 문예진흥기금의 지방 이전, 기금액 감소 등에 대비한 기부환경의 조성, 기존 기금의 권위와 영향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요구됨</li> <li>□ 작품의 질적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즉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이 높은 글로벌 성과지표 채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li> <li>□ 예술전용공간 집중 지원을 통한 예술창작거점 확충 및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가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창작 매개 활동 집중 지원 필요</li> </ul>								
□ 창작환경 다양화를 통한 예술창작 역량 제고 노력(사이버 문학창작활동지원 성과) ('온라인 창작 연중 수시공모' 누적 응모작품 수 : 총 65,738건)									
<b>연도</b>	<b>2005</b>	<b>2006</b>	<b>2007</b>	<b>2008</b>	<b>2009</b>	<b>2010</b>	<b>2011</b>	<b>2102</b>	<b>합계</b>
일반	3,073	5,150	5,564	5,108	4,117	4,020	3,671	5,270	35,973
청소년	2,665	5,625	4,506	2,497	3,633	3,116	3,856	3,867	29,765
합계	5,738	10,775	10,070	7,605	7,750	7,136	7,527	9,137	65,738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예산추이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예술진흥’ 항목의 사업 예산이 2010년 239억원 이후 2013년에는 약 150억원 정도의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음
- 반면에 ‘문화복지’ 항목의 경우 2010년 237억원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이후에는 580억원대에 이르게 되었음

■ 1973년 이후 문예진흥기금 사업 예산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술진흥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지역문화	영상문화산업	기타	합계
1973~1991	34,138	3,949	4,847	69,419	18,539	15,366	146,258
1992	4,194	1,924	1,349	5,586	4,950	944	19,934
1993	4,609	1,848	1,111	4,805	5,600	1,961	19,934
1994	6,128	2,037	1,594	6,689	8,000	1,486	25,934
1995	8,271	2,008	2,888	14,298	8,500	3,633	39,598
1996	8,061	3,383	2,488	5,894	8,500	1,030	29,356
1997	8,898	3,162	3,178	5,535	10,000	437	31,210
1998	8,851	3,075	1,576	5,781	30,285	411	49,979
1999	12,935	2,314	2,332	9,904	21,239	1,346	50,070
2000	16,930	6,431	3,763	4,437	60,509	1,448	93,518
2001	12,794	4,961	4,258	9,123	0	1,898	41,190
2002	10,712	5,874	2,511	12,650	8,156	1,887	33,634
2003	11,560	6,939	1,825	15,966	0	0	36,290
2004	7,913	50,479	2,155	23,543	0	732	84,822
2005	36,961	60,580	14,330	7,681	0	0	119,552
2006	29,129	55,546	4,668	27,731	0	0	117,074
2007	21,480	48,552	4,434	33,539	0	0	108,005
2008	22,992	24,800	4,251	33,126	0	0	85,169
2009	16,492	21,800	4,607	30,907	0	0	73,806
2010	23,921	23,700	6,032	59,313	0	0	112,966
2011	15,548	48,000	5,223	40,188	0	0	108,959
2012	14,861	57,155	4,986	40,779	0	0	117,781
2013	15,658	58,121	4,700	30,962	0	0	109,441
총계	353,036	496,638	89,106	497,856	184,278	32,579	1,653,493



(단위 : 억 원, %)

구분	예산	지원비율
예술진흥	3,530	21.4%
문화복지	4,966	30.0%
국제문화교류	891	5.4%
기반조성/지역문화	4,979	30.1%
영상문화산업	1,843	11.1%
기타	326	2.0%
합계	16,535	100%

[표 6-5] 문예진흥기금사업 예산 점유율(2006~2013)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28.5	26.2	35.1	30.6	27.3	21.5	18.2	18.6	34.2
문화예술공간운영	10.6	8.1	11.2	14.2	19.1	2.4	1.7		
생활속의예술활성화	46.3	46.9	29.8	28.7	20.3	47.8	52.2	53.1	40.6
지역문화예술진흥	10.9	10.7	13.4	15.2	19.4	20.1	18.4	18.8	15.9
예술의사회적 가치제고	3.7	8.1	10.5	11.3	13.9	8.2	9.5	9.5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06년도분은 2007년도 편제에 맞춰 재분류한 것임

※ 2007~2009년도 당시 사업명은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13년도 예산액 16억 3,200만 원 이관·폐합)

※ 2007~2008년도 당시 사업명은 '예술의 생활화'

※ 2007~2008년도 당시 사업명은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존'임

※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2013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물론 예술진흥과 문화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아 단순·대립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타 문화예술 전문기관보다 예술창작 지원에 대한 높은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에 국가 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었고, 지역별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이 설립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문화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책 목표와 방향의 모호성 속에서 유사, 중복된 성격의 지원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 이런 맥락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가 오랫동안 지원해 왔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사업 구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예술창작 지원에 대한 집중과 전문성 확보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비판과 제안에

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창작 지원의 오래된 관성과 나눠주기식 지원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참고 자료

[표 6-6] 예술창작역량 강화 사업 총괄(2006~2013)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술창조활동지원	10,685	9,444	9,444	7,700	2009년 중반에 지역협력형 사업인 <시·도기획지원>(50억 원)으로 전환			
-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5,685)	(8,244)	(8,244)	(6,300)				
- 수요자맞춤형지원	(5,000)	(1,200)	(1,200)	(1,400)				
예술행사지원	-	-	-	-	5,850	5,950	4,600	3,900
- 공연예술행사지원					(3,800)	(4,900)	(4,100)	(3,500)
- 시각예술행사지원					(2,050)	(1,050)	(500)	(400)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6,899	3,878	4,600	3,700	22,301	2,365	1,822	1,632
- 문화특성화사업	(1,500)	(1,300)	(1,900)	(1,500)	(23,700)	(48,000)	(57,400)	(58,121)
- 시각예술특성화사업(기획발굴지원)	(1,000)	(1,378)	(1,500)	(1,000)	(2010, 2013 예산편제 개편)			
- 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사업	(2,000)	(1,200)	(1,200)	(1,200)				
- 올해의예술작품시상및축제	(2,399)	(-)	(-)	(-)				
예술창작지원	-	-	-	-	6,600	6,250	6,270	5,900
- 문화창작(기금)지원					(800)	(900)	(800)	(800)
- 공연창작기금지원					(2,000)	(2,750)	(2,700)	(2,500)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지원					(800)	(500)	(500)	(500)
- 창작매개활동지원					(3,000)	(2,100)	(2,270)	(2,100)
다원예술지원		1,200	1,400	1,600	(위 '예술창작지원'에 포함)			
예술진흥공간활성화지원	-	-	-	-	9,440	2,830	3,180	3,814
- 문화창작집필실지원					(1,600)	(400)	(400)	(300)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1,900)	(1,000)	(1,200)	(1,764)
- 공연예술진흥공간지원					(4,940)	(1,000)	(1,000)	(1,100)
- 다원예술매체공간지원					-	(230)	(230)	(300)
- 예술가소통공간지원(예술가의집)					1,000	(200)	(350)	(350)
스토리창작및유통지원					2,310	(국고로 이관)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	1,500	3,000	4,500	3,500	16개 시·도로 이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시행			
전통예술활성화지원	1,937	-	-	-	-	-	-	-
- 전통예술발표및전승보급지원	(1,837)							
- 국악원형탐구및창작물개발지원	(100)							
소계(예술창작역량 강화)	21,021	16,322	18,544	14,900	24,200	15,030	14,050	13,614

\*\* 창작극활성화프로젝트, 무용인무가집중육성, 창작곡연주지원, 전통예술무대양식화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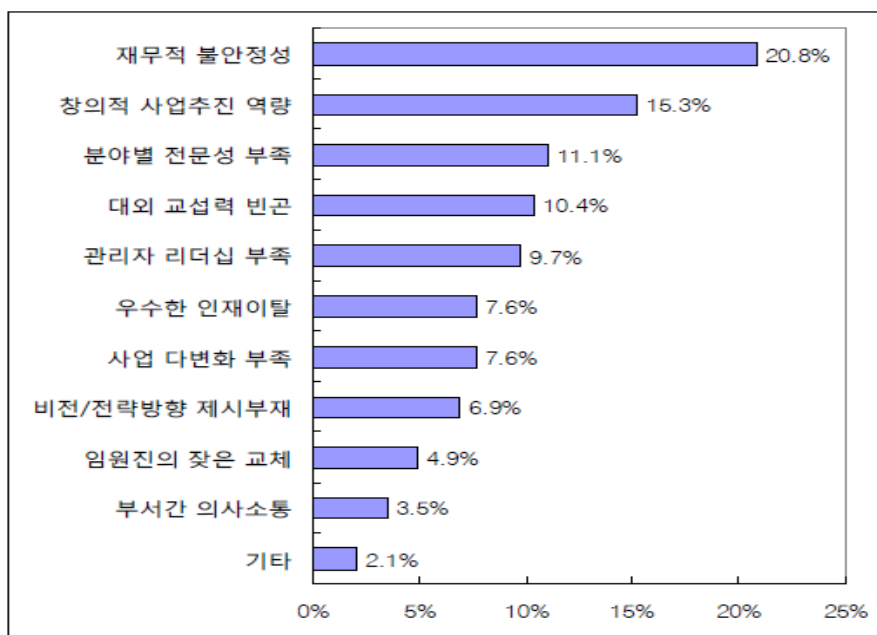
\*\* 2013년도에 예산편제가 개편되었으나 2010년도에 개편된 편제에 따라 분류한 것임

\*\* 자료 : 「2006~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실적보고서」(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2013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4. ‘문예진흥기금 등 재원의 불안정성과 함께 10년째 불안한 예술지원 사업’

- 지난 10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원은 절대적으로 문예진흥기금에 의존하고 있음. 하지만 문예진흥기금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03.12.31) 후 경륜·경정 수익금 중 24.5%가 전입되어 기금감소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예진흥기금 고갈을 비롯한 ‘재무적 불안정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의 최대 약점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약점요인 분석



-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예술 창작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예진흥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예술지원 재원 구조가 불안정하게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전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문예진흥기금 책임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물론 정부가, 우리 사회의 예술창작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참고자료

경남신문 2016년 08월 04일자

## 문예진흥기금 2017년 고갈, 문예창작지원 젓줄 마르나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추진**

**국비지원 절대적인 도내 문화계 직격탄**

**지역 예술인들 “재원 마련할 대책 필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예산이 2017년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여 문화계에 비상이 걸렸다. 문예진흥기금에 의

존하는 사업이 많은 도내 문화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문예진흥기금 실태= 문예진흥기금은 기초예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73년 조성됐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공연장과 영화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일정 비율을 더해 기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적립돼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2003년 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모금이 사라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금이 중단된 이후 적립원금으로 예술계를 지원해왔지만 2004년 5,273억원이던 적립금은 2014년 1,547억원, 2015년 9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엔 151억원으로 줄어 2017년에는 사업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지역특별회계로 전환 움직임= 정부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배분하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을 국고의 지역협력형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편성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갈된 기금을 다시 조성하지 않고 국가 예산에 편입해 각 지자체에 넘겨준 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역협력형사업은 창작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목적성 예산이지만, 지특회계는 각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 지자체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오진숙 서기관은 “지자체가 문화예술 분야를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지역으로 예산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 재정 한계로 지역 예술계가 더욱 궁핍해질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해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특회계 이관 여부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초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주요 사업의 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금존치 평가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 대부분의 분야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대체재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 지역에 미치는 영향= 2015년도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의 예산은 총 3,069억원이다. 이 중 자체 충당 비율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자체 출연(15.5%), 위탁(32.7%), 국비지원금(35.9%)도 사실상 국비 지원이 절대적이다.

도내 문화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남은 그동안 지역 예술특성화 사업에 문예진흥기금의 도움을 톡톡히 받아왔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에 14억6,8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5억8,300만원 등 4개 사업에 25억7,3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기금이 줄어들면 당장 예산 지원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원금액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을 제외한 레지던스, 시·도기획지원, 지역 문화예술육성지원 등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이 지특회계로 이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특회계는 특정한 지역과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맹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문체부의 지역문화예술지원이 이관 후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항목으로 편성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예술의 기획과 조정, 배분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실적 올리기용 공연장 짓기 등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결국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에게 할당된 지원이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로 치우칠 경우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를 특화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특회계로 사업을 꾸릴 경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예술인은 “당장 지역특별회계로 대체하더라도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것지만 시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 지원예산 편차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지역 문화수준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지원체계를 유지하거나 재원을 마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2015년 10월 06일

## 문예진흥기금 1천억 부실투자, 수백억 날릴판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 문예위, 부동산사업에 투자 10년간 원금 736억 회수 못해

최근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검열 의혹을 빚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지난 10년간 국내외 부동산 개발 등에 문예진흥기금 1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도 투자원금 73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백억원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문예진흥기금 손실처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6일 도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문예위는 2006~2008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공동주택 개발, 미국 뉴욕 맨해튼 임대아파트 운영, 광주 아파트 개발, 서울 홍은동·창동, 구리시 개발 등의 부동산 사업에 문예기금 1천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투자원금 중 264억원만 돌려받았고, 미회수금 736억원 중에서도 최대 581억원~최소 361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문예위는 국외 부동산 투자가 임대수익 저조와 공사 지연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위탁사업을 한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맨해튼 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 올해 1월 2심에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시드니 공동주택 개발 사업도 5월 1심 패소 뒤 항소심이 진행중이나 승소 전망이 불투명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할 처지다. 도 의원은 “투자 당시 문예위는 자금 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없었고, 내부 통제 부재로 기금운용 담당자 1인의 전횡에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문예위의 기금운용 담당자는 투자 관련 뇌물 수수로 징역 6년, 추징금 3억8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63개 정부기금 중 30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금별 운용 전문인력은 여전히 1~2명에 불과해 투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종환 의원은 “몇백만원의 문예기금도 사회적 논란 운운하며 지원에 인색한 문예위가 눈먼 돈처럼 해외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기금을 날린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문예위는 이에 대해 “투자 손실은 2008년 발발한 금융위기로 상당 부분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5. ‘청와대와 문화부 눈치만 보고 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독립성 훼손’

- 지난해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심사 검열 사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 주소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건
- 예술 진흥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
-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검열 문제가 하나의 사건이나 해프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예술 지원사업의 독립성, 자율성 훼손의 결과라는 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술의 창조성, 자율성 등 본래의 가치보다는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방향과 성과 목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문제. 이는 소수 예술행정 관료들의 성과주의, 편의주의 등이 예술 자체의 사회적 가치와 지원 원칙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예술 창작 및 예술행정의 수준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앞서 언급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비율에서 ‘예술진흥의 축소’와 ‘문화복지의 증가’ 역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 예술 현장이나 예술 수용자들의 일상보다는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 구조를 결정함으로써 일방적인 공급형, 중복형 문화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있

는 것이 현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원사업 구조 전반에 걸쳐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과도한 개입, 외압 등을 중단하고 산하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자율성 등을 보장해야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최근 들어 퇴행하고 있는 기관 내부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회복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예술 지원사업 심사 전 과정에 걸쳐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능동적으로 확보해야 함
- 참고자료

□ 시사IN 2016년 06월 23일자

## 검열당한 예술가들 ‘검열 연극’으로 돌아오다

권력으로부터 검열당해 작품을 무대에 올리지 못한 연극인들이 이번 정부 내내 속출했다. 연극인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예산을 모아 자유로운 ‘검열 연극’을 만들고자 한다.

고재열 기자 scoop@sisain.co.kr

권력에 의해 검열당하는 예술인들이 어떻게 권력에 복수할까? 검열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해 기억시키는 것이다. <권리장전(權利長戰) 2016\_검열각하>(이하 ‘검열각하’)는 그렇게 기획된 연극이다. 5개월 동안 검열에 대한 연극 21편을 상연한다.

6월9일, ‘검열각하’의 첫 작품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이 서울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처음 막을 올렸다. 김재엽 연출가는 검열의 가해자들에게 주목했다. 그들이 어떤 논리로 검열을 정당화하고 검열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는지 살폈다. 배경은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

떤 논리로 검열 행위를 변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검열관들을 두둔했는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재현했다.

김재엽 연출가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 검열의 최대 피해자인 박근형 연출가에게 가해진 검열을 복기한다. 박 연출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이나 검열을 당했다. 맨 처음은 2013년 국립극단과 함께 공연한 <개구리>였다. 이 공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인물이 국정원 댓글 공작을 두둔하는 듯한 대사를 했다. “우리 딸애 작년에 기말시험 본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커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아주 염병을 떨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시험을 다시 보자, 퇴학시키자. 아유 이놈들 부모 없이 혼자 산다고, 옛날 같으면 그냥 탕크로 확!”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개구리>에 대한 비난 기사가 쏟아졌다. 어떻게 민간극단도 아닌 국립극단에서 이런 공연을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편파적이라고도 지적했다. 당시 국립극단 손진책 예술감독은 “이런 연극을 현재 상황에서 국립극단이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권력은 박근형 연출가를 용서하지 않았다.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산실 우수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그가 연출하는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탈락시켜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심사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간부들이 박 연출가를 찾아가 포기를 종용했다. 결국 박 연출가는 작품을 철회했다.

가장 최근의 검열은 2015년 10월 국립국악원에서 발생했다. 박근형 연출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 <소월산천>이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프로그램으로 공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호성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 이 작품을 제외시켰다. 표면적인 이유는 공연 장소 풍류사랑방의 극장 시설이 연극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개구리>에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거쳐 <소월산천>에 이르는 동안 검열의 논리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이다. <개구리>에서는 ‘국립극단이 이런 논쟁적인 작품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논란을 일으키는 식이었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군인이 불쌍하다는 식의 공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과잉 해석을 바탕으로 제외된다. <소월산천>에서는 내용과 상관없이 단지 박근형 연출의 작품이

기 때문에 배제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연거푸 검열을 당하기 전까지 박근형 연출가는 대학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견 연출가였다. 그러나 검열의 칼날이 집중되자 연극계의 ‘기 피 인물’이 되었다. 그와 함께 작업을 하면 정부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었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지난 3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되었고 <소월산천> 역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플랫폼창동61에서 6월4일과 5일 무대에 올랐다.

<검열언어의 정치학...>은 박근형 연출가에게 검열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열의 2차 가해가 일어나는지를 살핀다. 문화예술위원회처럼 지원기관이 검열기관이 될 때, 보수 정치인과 수구 언론이 이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김재엽 연출가는 검열의 언어를 분석해 검열을 재구성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국가에 대한 비난이라 하고, 작품이 보편성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편향성을 구현하고, 예술은 정치적이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성을 드러내고, 이런 공연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을 바람직하지 않은 국민으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검열언어의 정치학...>에 이어 공연되는 작품은 김수정 연출가의 <그러므로 포르노>(6월16~19일)이다. 이번에 공연되는 작품 중 유일한 재공연인 이 작품은 처음부터 ‘우리는 검열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포해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 세월호 참사 떠올리게 한다며 지원 사업 ‘탈락’

‘검열각하’는 대학로의 소장파 연극인인 김수희·윤한솔·이양구 연출가가 맨 처음 기획했다(이후 부새롬 연출가가 가세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문화공간 지원사업에 공모해 연우소극장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이들은 검열을 화두로 1년간 연극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검열각하’의 예술감독을 맡은 김수희 연출가는 “후배들이 질책했다. 선배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개기는 시늉만 하다가 시간

이 지나면 신청서 들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슬렁거릴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연극제를 열기로 한 것은 그동안 검열당한 공연은 있었지만 검열에 관한 공연은 없었기 때문이다. ‘검열각하’ 기획진은 “우리만 검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함께할 연극인을 수소문했다. 순식간에 20개 극단이 모여들었다(임인자 전 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은 개별 참여). 그렇게 해서 21편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12월에 행사를 확정지었고, 1~2월에 각자 팀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준비기간을 가진 다음 6월부터 공연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검열 피해 당사자도 있다. 윤한솔 연출가는 <안산순례길> 공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있었다. 단원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장면 등이 있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재엽 연출가 역시 <알리바이 연대기>를 국립극단의 소극장에서 공연하느라 여러 가지 우려를 접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가 주관하는 ‘팝업씨어터’에 참여했던 김정·윤혜숙·송정안 연출가도 검열 피해의 당사자다. 김정 연출가의 <이 아이> 공연에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고 수학여행을 간 아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공연예술센터 측은 작품 공연을 방해했다. 그리고 다른 두 팀에게도 ‘대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혜숙 연출가와 송정안 연출가는 검열을 거부했고, 결국 작품은 공연되지 못했다. 이 세 연출가는 자신들이 몸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열에 대한 작품을 풀어낼 예정이다. 윤혜숙 연출가와 송정안 연출가는 이번 공연을 위해 아예 극단을 새로 차렸다.

‘검열각하’의 주축은 3040 연극인이다. 선배 연극인들의 반응은 갈렸다. 응원하고 동참하는 연극인도 있었지만, 피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연극인도 있었다. 김수희 연출가는 “선배 연극인들에게 부탁했더니 ‘그런 걸 왜 해? 다 지나간 일인데. 이미 한물간 이야기 아니야?’라며 ‘너희는 무모하게 뜨겁다’라고 질책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소수였다”라고 말했다.

다음 문제는 돈이었다. 기본적인 제작비 부담 때문에 연극 장르는 다른 분야보다 지원금 의존도가 크다. ‘검열각하’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신의 연극 인생을 담보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김수희 연출가는 “예술이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할 지원금이 예술을 길들이는 채찍으로 쓰이고 있다. 더 이상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지원금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지원금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의 화두는 자력갱생이다”라고 말했다.

### 음반·도서 등 ‘검열’ 작품 모여라

‘검열각하’의 총예산은 4,300만원이다. 작품별 예산은 200만원이다. 물론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모자라는 돈은 연출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김 연출가는 “혜화동 동인 활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재능교육 비정규직 문제, 해방공간 연극 회고전 등을 했는데 의외로 관객들이 지탱해주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연극이 공공 예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자유로워지자, 야생으로 돌아가자’ 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연극적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열각하’ 제작비는 텀블벅 등을 통해 모금도 진행한다([www.tumblbug.com/projectforright](http://www.tumblbug.com/projectforright)). 개별 후원도 가능하다(우리은행 1005-702-539358 김수희).

‘검열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검열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하는 연출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지켜야 할 선’의 경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검열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권리장전(權利長戰) 2016\_검열각하>의 장전은 원래의 ‘장전(章典)’이 아니라 긴 싸움이라는 뜻의 ‘장전(長戰)’이다. 5개월의 연극제 기간에 거리극도 진행하고 일반 시민과 함께 포럼도 열고, 검열당했거나 검열에 대해서 다룬 음반 도서 작품을 모아 전시회도 할 생각이다. 일종의 ‘검열 박람회’가 우리를 찾아온다.

□ 경향신문 2015년 12월 17일자

## 문화예술위원회 불투명 행정 논란

### …작가와 작품명은 안 밝히고 지원대상 접수번호만 공개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 “작가 목록에 공정성 의혹”
- 연극계에선 성토 이어져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문화예술계의 잇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불투명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최근 ‘연극 창작산실 대본 공모’와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대본 공모’ 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와 작품명 대신 지원자들 접수번호만 공개했다(사진 표시 부분). 누구의 어떤 작품이 선정됐는지를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공연계의 비판을 사고 있다.

예술위가 대본 공모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발표한 작품은 모두 5개다.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4편으로 지원금액은 최우수작 5,000만원, 우수작들은 편당 2,000만원 씩이다. 최우수작의 경우 작가, 작품명이 아니라 ‘201530523’으로, 우수작1의 경우 ‘201531126’의 접수번호만 발표했다.

도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11조에 따르면, 지원심의회와 관련해 문화예술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공개 대상은 심의위원 명단,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의 이름, 지원금액, 심의 내용, 평점 등이다. 도 의원은 “그러나 예술위가 올해부터 비공개, 개별통보

방식으로 바꾸면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술위는 2015년도 연극 창작산실 대본 공모에는 총 195편이 응모해 13편이 최종심에 올랐으며, 집중토론 결과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도 창작산실 대본 공모 심의위원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심사평은 “접수번호 201530940은 에피소드의 독창성과 상상력이 뛰어나고…”라는 식으로 이뤄졌다.

연극계는 “예술위는 불투명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극인들의 토론공동체인 대학로 X포럼의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엽 연출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쓴 작품이 접수번호로만 호명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작가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모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인자 프로듀서는 “작품명에 대한 비공개는 작가 모욕”이라며 “검열을 제도화하려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작품명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모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문화예술위원회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술위는 “표절과 저작권 문제 등을 재점검하고 최종 발표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위는 16일 오후 4시30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대본공모 시상식을 개최하고, 17일 오전 9시40분경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작가와 작품명을 뒤늦게 공개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예술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와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술위는 당시 ‘창작산실’ 우수공연 사업에 선정된 박근형 극작가의 작품에 대해 결과를 바꿀 것을 심의위원들에게 종용하다가 거부당하자 직원들이 작가를 직접 찾아가 포기 각서를 받았다. 또 직원이 극단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처럼 행정 절차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예술위는 당시 국감에서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내부감사를 진행해 해당 직원 2인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견책, 엄중경고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김소연 평론가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며 “예술위가 파행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개선방안

###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1. 사회적 협치에 기반한 지원사업 활성화 : 문화예술 생태계 및 현장과의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지원정책 수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회’ 구조가 내재하고 있는 가치와 원칙을 복원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개방성, 협력성 등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필요 있음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구조 자체에 대한 혁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수행 중심에서 ‘한국의 중장기 예술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 예술 생태계 현장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개방형 소위원회, 의제별 소위원회 등 협치 테이블 활성화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설명회 수준을 넘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정책 방향 그리고 사업계획 등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협치할 수 있는 공론장(토론회, 포럼 등) 운영 활성화
- 예술창작 지원 정책과 사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 추진

## 2.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는 지원사업 구조 마련 :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들과 함께 지역 협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사업 구조 수립

-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 전문기관으로서 문예진흥기금 배분 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전문기관으로 정체성 확보 필요
- 지난 10년 사이 변화된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환경, 특히 지역문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고민 필요
-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을 문예진흥기금 전달체계 정도로 접근하는 현재의 후진적 예술행정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 주체들,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정책 수립 및 구축 필요
- 문예진흥기금의 지역문화예술지원 트랙의 경우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들에게 과감하게 권한 이양하여 지원금의 효율성, 자율성 등을 강화하는 선진화 추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국가 단위,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국제 교류,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장 및 융복합(과학기술 외)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조율하는 예술 정책과 행정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영역과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국가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 3. 예술 창작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지원사업 전략 추진 : 문화예술분야 전문기관들 사이의 중복·유사 지원을 피하고 문화예술위원회로서 예술 창작에 집중하는 지원사업 전략 추진

- 지난 10년 사이 변화된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환경, 특히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세분화 및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고려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 필요
- 문화복지, 예술교육, 예술경영 등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 과감하게 역할 분담하고 지원사업의 중복성 조율
- 지역문화, 도시문화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중복성 조율하고 협력적, 상호보완적 지원 구조 확보
- 예술 창작에 집중하는 구조를 통해 기존의 장르별 나눠주기식 예술 창작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인 예술창작 지원,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지원,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예술 주체 지원 등의 지원정책과 사업 전문화 추진

#### 4.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다각화 마련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구조 마련

- 지난 10여년 사이에 반복되었던 예술 재원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 마련 시급
-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떠넘기기 식의 편법 행정을 중단하고 국가 단위에서 책임있게 예술 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태도 필요
- 저성장, 저금리 등 시대 변화를 고려했을 때 ‘기금 조성 및 금리 기반 지원사업 구조’라는 기존의 기금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 필요
- 국가 단위, 국가 재정 차원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일반 회계 마련이 적절한 대안
-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일반 회계 확충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문화재정 구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구조 및 재원 조달 구조 수립하여 예술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마련

## 5. 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독립성 확보 :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예술행정 실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전문기관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하는 행정 체계와 문화 확립
- 문화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전문’기관, ‘협력’기관으로서의 위상 자체를 행정부가 존중해야 우리 사회의 예술적 창조성, 수월성, 자율성 등이 확장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지난 검열 사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에 기초하여 예술 지원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민주성, 개방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 설계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위원 풀 구성에서부터 심사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통해 예술가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심사위원 결정부터 결과 공개까지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지원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협치(거버넌스) 구조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 필요 있음